

50년사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이야기 <연재 제12회>

우리협회의 강령과 유석창의 복지농촌철학(下)

- 이념의 형성과정 및 공식선언과 전국적인 시·군지회의 결성 -

寒梅山房主人 白甫 정장섭
(본회 상임고문)

한국농업의 미래상과 조용한 혁명으로 집대성

그러므로, 농민의 나라인 한국이 농업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역사적 과업을 독농가의 모임인 우리 협회가 담당하여, 그 발전단계를 앞으로 10년간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1단계는 농산물 증산 단계로서 이는 정부가 요청하는 식량증산 단계입니다. 최종연도인 1971년도에 가서는 4,928만 8천석의 양곡을 생산하여, 5.3%의 잉여가 생겨서 미국의 잉여농산물 도입을 지양하고 일보 전진하여 530만석의 미곡 수출(톤당 50불)을 하게 된다면, 식량의 자급은 물론 농업이 경제안정의 제1조건을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적 자립은 우선 농업증산에 의한 식량의 자급자족이 첫 해결의 과제라 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산업의 형태와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생산구조의 전환으로 5단보 미만의 영세농업 인구를 타 산업으로 옮기게 하는 토대를 구축해야 하며, 중소도시 주변에다 농촌의

유휴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중소공업단지를 조성해야만 합니다. 주산지의 설정을 도별로 하고 장차 국내시장은 물론 국제시장에까지 진출할 수 있게 도별로, 군별로 주산지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산지 운동이야말로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농가인 여러분은 백년지대계를 가지고 도지사보다도 더 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자부(自負)하여야 합니다. 자자손손(子子孫孫)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닦는데 있어서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적자부채(赤字負債)의 생계농업에서 탈피하여 흑자 저축 영리농업으로의 이행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로써 자조, 자립, 자활하는 안정농가가 자연부락 내에서 과반수를 점유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제2단계는 정부에 대하여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정책과 경제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곧, 독농가를 중심으로 굳게 뭉쳐서 전국적으로 단결하여 농업소득 향상을 이룩한다면, 이를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정부도 농민들의 요구에 응하게 될 것입니다.

5단계 발전론, 4대 결실운동과 3대 선행조건

제3단계는 농민이 국가에 대하여 봉사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곧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만큼 비로소 주인으로서 국가에 대한 뒷받침을 농민들이 해야 할 단계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하여 농민이 혹자 저축 생계로 농가가 모두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경제적 자립에 의하여 국가적 밑바탕이 될 수 있으며 민주 국민으로서의 힘이 커지고 토대를 바로잡아 농민이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제4단계는 농업의 발전적 토대에 의하여 공업 국가로 발전하는 단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농민의 잉여자본이 투자되어 농촌 공업화가 실현되도록 농민이 주체가 되어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농민의 지위 향상에 의한, 농촌의 자본 형성으로 농업 경영은 기계화가 실현됨으로써 농업의 근대화가 완수되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제5단계는 농업과 공업이 병진(並進)하는 단계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제1차 대단원이 성취될 때, 10년 동안에 이 나라는 바로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1,600만 농민이 경제적 자립을 하고 경제권을 장악하게 된다면 비로소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완전 독립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목표를 완수하자면 3대 선행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독농가들의 동지적인 규합이 모체가 되어 5만개의 자연부락을 결합시켜야 되며, 둘째, 전국 리동(里洞)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인 정비가 되어야 하며, 셋째, 기술의 수련과 지도자의 양성이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선행조건(先行條件)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목표인 5대 역사적 과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농업 발전을 위한 5단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단결과 기술 연수 및 교류에 의하여 4대 결실운동을 전개해야만 합니다.

(1) 독농가의 발굴: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은 독농가를 발굴해야만 합니다. 박해수 지부장은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독농가입니다. 이러한 독농가야말로 국가 부흥의 원동력이 될 것이며, 우리 운동에 앞장 설 적격자이며 또한 우리 모두의 커다란 수확이라고 하겠습니다.

(2) 기술조합운동: 우리는 리동(里洞)에서 독농가가 중심이 되어 기술 교류와 기술 연구를 위한 농사기술조합운동 등을 일으켜야만 합니다.

(3) 말초비대(末梢肥大)운동: 우리는 중앙이 비대하는 운동이 아니라 말초가 비대해지는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는 처음 있는 일이며, 원심적(遠心的)인 운동에 의하여 말초가 살찌서 저질로 중심부가 비대해지게 되어야 합니다.

(4) 5만 고구마 비대운동: 우리는 농사기술조합으로 5만 자연부락을 살찌게 하기 위하여, 고구마의 잎과 줄기가 되어 고구마인 자연부락이 부유해지도록 독농가들이 선도자가 되어 농업형태를 바꾸는 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이번 김해 회의

는 역사적 의의가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 도단위를 책임지고 일으키는 역사적인 중책을 맡았다는 사실을 재인식하고 사활(死活)을 걸고 투쟁을 하여 봅시다. 우리들은 백절불굴(百折不屈)의 투쟁으로써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하여 자진해서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회의를 하고 있는 이 닭집이야말로 말로 역사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고 끝을 맺고 있다. 15명의 상임이사(11개 시·도 지부장 포함)들 앞에서 도도하게 털어 놓은 이 연설은 유석창의 농민운동에 대한 용도(雄圖)이며 기본 노선이었다. 숙연한 분위기에서 경청하던 상임이사들은 유석창의 참뜻을 이해하고 결의와 새 각오를 다지는 그런 눈빛이었다. 김해회의의 가장 큰 수확은 동지애를 더욱 돈독히 한 점이라고 하겠다.

’63년 10월에 협회창립, ’64년에 농업기술회보의 창간과 전국적으로 11개 시·도지부의 결성, ’

65년에 협회의 강령을 확립하고 제1차 연수생을 일본에 파견하였고 연수원을 개원하여 시·도지부 상임간사(사무장)11명의 연수를 시작으로 129명의 전국 시·군지회장 후보들의 교육, 제1회 시·도별 농업기술자대회에 이어 제6회 전국대회의 개최 등 순풍에 돛을 단 것 같았지만 시·도지부 상임간사의 유급화와 사업이 확대 될수록 상허의 두 어깨는 무거워만 갔다. ㉞



어느때는 유서깊은 신라의 고도(古都)에서...(1967년 9월)

【 50년사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 이야기 연재일람표 】

제1회 2004년 2월호	경운 김종 선생 =우장춘 박사의 명성에 가려서 알려지지 않는 업적들=
제2회 2004년 3·4월호	인농 박갑수 회장 =우리협회를 탄생시키고 중요계에 남긴 큰 발자취=
제3회 2004년 5월호	마산의 김병기 선생과 여대기 선생 =농촌지도자로서 농업기술보급과 대회운동을 제안=
제4회 2004년 6월호	거봉 이호철 선생과 삼농 송석도 선생 =평생을 농민으로서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지켜낸 지사형 농민=
제5회 2004년 7월호	창립당시의 김건 전무와 이진수 사무국장 =초창기 우리협회의 초석을 다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
제6회 2004년 8월호	김성도 서울지부간사와 고중덕 충남지부장 =지식인 농부로서 채소와 과수로 성공하고 협업과 협동조합운동의 큰 업적=
제7회 2004년 9월호	김일수 연수과장과 초창기 사무국 실무진 =박봉에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낮밤없이 일하면서 초석을 다졌다=
제8회 2004년 10·11월호	유석창 회장의 초창기 언행과 11개 시·도지부의 창립 =창립과 동시에 사회단체등록, 연수원 착공, 회보창간, 11개시·도지부의 결성=
제9회 2004년 12월호	부설 농업기술연수원의 착공과 제5회 전국대회 =협회추천 첫 제5회 전국대회 시민회관에서, 3일 행사에 시가행진도=
제10회 2004년 1월호	주춧돌이 된 11개 시·도 창립지부장들의 프로젝트 =시·도지부의 창립, 포석으로 상허는 천군만마를 얻은듯 기기양양하였다=
제11회 2004년 2·3월호	제1차 연수생 일본파견과 부설농업기술연수원의 개원 =4대 결실운동의 제창, 시·도지부 유급상임간사의임용과 제1회시·도별대회 개최=
제12회(上) 2004년 4월호	우리협회의 강령과 유석창의 복지농촌철학 =이념의 형성과정 및 공식선언과 전국시·군지회의 결성=
제12회(下) 2004년 5월호	우리협회의 강령과 유석창의 복지농촌철학 =이념의 형성과정 및 공식선언과 전국시·군지회의 결성=